

# 지방자치 30년...시민과 함께 ‘미래 30년’ 설계한다

시, 오늘 시청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 개최  
민관 성과 점검·비전 합의...전라권 간담회 등 잇따라

광주시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시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30년의 자치 비전을 설계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5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을 10일 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한다. 지난해 96개 모든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마무리한 뒤 처음 여는 대규모 합동 행보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마을자치의 실행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행사 주제는 ‘손을 맞잡고, 자치의 길’로다.

시민과 행정,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가 한 공간에 모여 참여와 결정,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재확인하

고 마을 현장의 실천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광주시정이 지난 한 해 구축한 제도 기반과 각 동의 운영 성과를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개선점을 제안할 수 있도록 현장형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배치해 공론과 실행이 한 축으로 움직이도록 구성했다.

개막 이후 시민을 전역은 살아 있는 자치 아카이브로 변한다.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박람회에서는 주민총회 운영, 생활 의제 발굴, 마을계획 집행 등 각 동의 성과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변화가 가관별 전시와 사례 스토리로 소개된다.

협치마을과 마을교육공동체, 인권마을과 여성친화마을, 에너지전환마을 등 광주형 마을활동의 분화와 진화를 한눈에 보는 동선도 마련해, 자치가 복지와 교육, 인권과 에너지 전환 같은 생활 의제와 어떻게 결합해 왔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확인하게 한다.

우수사례 발표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에 뒀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각 동의 주민총회로 의제를 확정하고 예산을 매칭해 사업을 추진한 과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 장치 등을 투명하게 공유해 상호 학습의 장을 연다. 발표는 행정 설명이 아니라 주민과 활동가, 현장 코디네이터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구성해 실무 노하우의 편차를 줄이고 자치의 표준을 시민과 함께 정립하는 데 의미를 뒀다.

마을상화는 자치의 경제적 순환을 보여주는 체험 무대로 꾸며진다.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의 상품을 시민이 현장에서 구매하고, 생산의 의미와 지역 내 순환 구조를 이해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단순 판매를 넘어 지역경제를 키우는 주체가 주민이라는 원칙을 체감하도록 설계 과정, 수익 환원 방식, 일자리 연계 등을 투명하게 안내해 자치의 선순환을 생활경제로 확장한다는 의미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광주다운 마을자치 실천 선언문’ 채택이다.

시민과 활동가, 행정이 함께 문안을 확정하고 선언하는 과정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공개해 참여의 정당성과 실행의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번 한마당은 단일 행사를 넘어 ‘공론장’으로 연결된다.

같은 날 오후 시청 1층 열린문화공간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가 열려 자치분권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제를 광역권 단위에

서 논의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기정 시장, 주민자치회 대표와 마을활동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재정 분권과 생활자치 확장, 주민총회 고도화,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초광역 협력의 실무 장치를 짚을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한마당을 출발점으로 주민주권의 표준을 생활 속에서 증명하고, 도시의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실행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운원 자치행정과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의 전환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이 기약하고 결정하는 광주다운 마을자치 문화를 더 넓히고, 정책과 예산, 행정 절차를 그 문화에 맞게 조정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황룡친수공원 관리 주체 이원화...시민 불안 커져

운영·관리 광주시환경공단  
불법행위 단속 광산구 소관  
파크골프장·자전거도로 등  
민원 발생시 책임소재 모호



9일 광주시 광산구 황룡친수공원에 자전거 도로 공사 아스콘이 100여m 떨어진 상태로 10여일째 방치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선운지구 황룡강변의 황룡친수공원이 쾌적한 휴식 공간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관리 주체 이원화에 따른 운영 난맥상으로 각종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파크골프 이용 확대와 자전거도로 부설 시공 논란, 어린이 이용시설 부족 민원이 누적되면서 “관리 일원화와 실질적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9일 광주시환경공단과 광산구에 따르면 황룡친수공원은 산책로와 체육·편의시설을 갖춘 하천 친수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황룡강변에 조성된 황룡친수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산책과 여가활동을 위해 산책로,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친환경 공간이다.

최근 파크골프 인기 증가로 공원의 일부가 사실상 골프장으로 변질되면서 아이들과 산책하는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책로까지 날아들지 모르는 골프공에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선운지구에 거주하는 A(여·42)씨는 “여린 자녀들과 함께 이용하기에는 적합한 공간이지만, 파크골프 참여 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골프공이 넘어울 위험성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토로했다.

운영·관리는 광주시환경공단,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은 광산구가 맡고 있어 민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원의 운영·관리는 환경공단 소관이며, 우리 구는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권한만 갖고 있다”며 “파크골프 이용 관련해서는 지난 6월 환경공단과 주민, 동호회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시설 분리 운영을 결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파크골프 활동은 하천변상 단속 대상이 아니기에 이용 제한 여부는 환경공단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근 자전거도로 공사 과정에서 부설시공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공단이 최근 공원 산책로를 따라 폭 2m가량

의 자전거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기존 아스팔트를 파헤치는 과정에서 공사 품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광산구는 자전거도로 시공도 환경공단의 사업 범위에 속한다며 부설시공 민원도 공단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황룡친수공원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여가 공간으로 거듭나려면 관리·단속 주체의 통합과 주민 의견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글·사진=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교통공사 사장에 문석환 이사장 내정

광주시는 광주교통공사 제9대 사장 후보로 박관현기법재단 문석환(사진) 이사장을 내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임원추천위원회가 제시한 2명의 최종 후보 중 1순위인 문 이사장을 사장 후보로 확정했고, 27일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보고서가 채택되면 시장이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단계적 개통과 환승·노선체계 재설계, 이용자 경험 개선 등 급작한 과제가 한꺼번에 몰린 상황에서 새 수장의 전략·조정 능력이 조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문 후보자는 20년 넘게 감정평가사로 활동한 자산·재무관리 전문가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외이사,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광주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등 공공 현장을 넘나들며 제도 이해와 의사



결정 경험을 쌓았다.

문 후보자는 전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수산학과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나라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역본부 이사로 재직했다.

공공 인프라와 토지·자산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 관리, 이해관계자 조정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시는 “전문경영 역량과 공공성에 대한 감수성을 겸비했다”며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정적 개통·운영과 시민 중심 교통체계 혁신을 동시에 이끌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독감 일찍 찾아와...예방접종 서두르세요

광주시가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앞당겨진 만큼 11월 초를 집중 적기로 보고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현재 형성에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 확산 전에 맞아야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집계상 43주차(10월 19~2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 1000명당 13.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3.9명의 3배를 넘어섰다.

40주차 지표가 12.1명으로 유행 기준선 9.1명을 초과해 10월 17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뒤, 지역 내에서도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12월에 환자가 늘던 패턴이 올해는 두 달 가량 앞서 시작된 셈이다.

이에 광주시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신부, 생후 6개월부터 13개월까지 영유아는 2026년 4월까지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대상 무료 접종은 12월 5일까지 진행된 다.

접종은 광주지역 지정의료기관 690곳에서 가능하며, 세부 정보와 예약 안내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보건소와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7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10일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무료 예방접종 안내 캠페인을 열어 맞춘 상담과 접종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단체 생활이 잦은 고령층과 만성질환자에게는 조기接种의 필요성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